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월 24일

CUOMO 주지사, 세금면제위원회의 수요일 청문회를 알리다

세금면제위원회, 지방정부의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건의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세금면제위원회가 1월 25일 알바니에 있는 주정부 청사에서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주의 높은 재산세율에 일조한 지방정부가 직면한 치솟는 물가를 처리하기 위해 주지사와 입법기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이 공청회는 이 위원회가 갖는 최초의 대민 접촉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이런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방정부와 학군이 비용 증가, 재산세 인상, 주요 서비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의 예산에는 이미 납세자를 위해 비용을 절감할 수십억 달러의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 위원회가 뉴욕주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금면제위원회란 지방정부와 학군에 법률과 규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진행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11인으로 구성된 실행 및 입법위원회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와 학군에게 \$1억 2,5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세금면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세금면제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금면제위원회의 공청회는 1월 25일, Blue Room(주정부청사 Room 250)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방정부와 학군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뉴욕주 법률과 법규 전반에 뻗어 있어 유연한 적용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찾아서 검토하고 개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orean

세금면제위원회 위원 정보:

- Lawrence Schwartz, 위원회 의장, 주지사 비서
- Mylan Denerstein, 주지사 변호인
- Robert Megna, 예산국장
- Cesar Perales, 주무국장
- David Wakelyn, 교육부 차관
- James Introne, 보건부 차관
- Kristin Proud, Human Services, Operations, and Technology부 차관
- Senator Elizabeth Little (상원 임시 상원의장이 임명)
- Senator Jack Martins (상원 임시 상원의장이 임명)
- Assemblyman Carl Heastie (국회의장이 임명)
- Assemblyman William Magnarelli (국회의장이 임명)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